

##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최 형 성<sup>1)</sup>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관련 변인(재미한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미국 거주기간, 사회적 지원, 우울), 남편관련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 연령), 가정생활관련 변인(가정 수입)들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미한인 어머니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들은 그 영역에 따라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어머니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연령, 남편의 연령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편의 협력은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재미한인 어머니, 양육효능감, 남편의 협력, 우울, 주위의 도움

---

1) 교신저자 :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hyungsung@silla.ac.kr)

## I. 서론

2013년은 재미한인 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지 백 십년이 되는 해이다. 1903년 120여명의 한인을 실은 이민선이 하와이에 도착한 이후 (재미한인역사, 2003), 이들은 비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해외 이민자 집단이 되었다(이석호, 2009. 7. 27). 이들은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Kang, Okazaki, Abelman, Kim-Prieto, & Lan, 2010) 또 하나의 한국인 집단이다. 백인 주류사회로의 이민으로 인한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그 지위를 확고히 한 이들이지만, 이들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수는 1,423,784명 정도이며 재미한인 집단이 아시안 국가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업이 바쁘고 조사 참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재미한인(재미한인은 도대체 몇 명?, 2011. 5. 29)의 수까지 고려하여 보면 실제 이들의 수는 미국 인구센서스국의 보고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유교적 성향과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한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자손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Chang & Myers, 1997). 그러나 상반되는 두 사회의 가치관 공존은 이들의 양육 가치관의 혼

돈과 자녀와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왔다.

재미한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재미한인 부모들은 미국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녀양육 방식과 한국의 상호의존적이고 가족응집적인 자녀양육의 상반되는 가치관 속에서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갈등 및 정체감 혼돈을 경험하고 있으며(Chang & Myers, 1997),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Sohn & Wang, 2006),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족 및 세대 간 갈등 등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Chang & Myers, 1997; Kang et al., 2010; Sohn & Wang, 2006). 게다가 이들은 이민을 통해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한 사회적 지원의 현격한 저하 및 사회적 고립을 경험(Chang & Myers, 1997)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재미한인 부모들의 이러한 고충은 재미한인 자녀들의 발달적 경향성, 예를 들면 백인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자존감과 자아 확신이 낮으며, 타인의 승인에 더 민감한 경향성, 그리고 다른 아시안계 청소년들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치 못한 경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Cho, Hudley, & Black, 2003; Choi, Stafford, Meininger, Roberts, & Smith, 2002; Rhee, Chang, & Rhee, 2003; Zhou, 2004). 재미한인 아동 중 일부에게서 연령 증가와 함께 부모의 희생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있다고는 하

지만 대부분은 연령 증가와 상관없이 여전히 부모와의 갈등과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Kang et al., 2010).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한국문화를 거부하고 동시에 미국 주류문화로부터는 거부당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Cho et al., 2003),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씨 사건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여성결혼이민자 청소년의 연쇄 방화사건(다문화 소년의 방화, 우리의 반성, 2012. 5. 16)과 마찬가지로 소수집단 자녀들의 우울과 열등감에 의한 사회적 부적응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동일한 하나의 예라 하겠다.

한편 재미한인 이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녀의 학업(미국투자이민의 긍정적 조건, 2011. 7.11)인 만큼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0), 이러한 압력은 자녀의 높은 학업 성취를 가져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학업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 때로는 학업 성취포기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Cho et al., 2003),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9).

재미한인 집단이 비록 주미 아시안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집단이기는 하지만(U. S. Census Bureau, 2010), 미국 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같은 동북아 국가 중 하나인 재미중국인의 양육에 관한 연구에 비해 재미한인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 선행된 연구들도 재미한인 대상이 아니라 미주 여러 아시안의 양육으로 통합

된 경우가 많아 재미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의 경향성과 특성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아, 소수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국내 다문화의 양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할 때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의 양육에 관한 여러 변인 중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변인이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으로, 높은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을, 낮은 양육효능감은 부정적이고 학대적인 양육행동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Teti & Gelfand, 1991).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양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모훈련 프로그램 찾기 및 참여와 같이 바람직한 양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이러한 양육효능감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효능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양육효능감 신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아 및 비행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효능감 신장을 꾀하는 부모훈련 및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차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활용방안 마련에도 노

력하고 있다(최형성, 2005a). 그러나 양육효능감의 이러한 영향력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인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미한인 특히 양육의 일차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살펴보고, 제 변인들이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 양육과 양육효능감 이해에 기여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본 연구는 이미 선행된 한국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최형성, 2005b),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최형성, 2010)와의 비교를 통해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특성 파악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선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을 아동관련 변인, 어머니관련 변인, 남편관련 변인, 가정생활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면, 먼저 아동관련 변인 중 아동의 성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아동의 성이 양육효능감과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형성, 2005b, 2010; 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여아가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훈육 능력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형성, 2005b),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여아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형성,

2010).

아동의 연령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두 변인 간의 무관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최형성, 2005b; Coleman & Karraker, 2000; Hess, Teti, & Hussey-Gardner, 2004)이 다수이지만, 아동에게 과잉행동증과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증가가 어머니의 낮은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Mash & Johnson, 1983)도 있다. 두 변인 간의 국내 연구를 살펴 보더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이 없으며 아동의 연령 증가가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최형성, 2010), 한국어머니의 경우 두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 없음이 보고되기도 하여(최형성, 2005b), 아동의 연령증가가 인종이나 장애 등의 소수집단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어머니관련 변인 중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두 변인 간의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최형성, 2005b, 2010; Cutrona & Troutman, 1986). 특히 남편의 협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여러 사회적 지원 중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Holloway, Suzuki, Yamamoto, & Behrens, 2005; Teti & Gelfand, 1991), 이는 한국어머니와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형성, 2005b, 2010).

어머니의 우울은 Bandura(1997)의 효능감 메카니즘 중 하나인 생리적·정서적 상태를 측

정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 대체로 효능감과 우울은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Scheel & Reickmann, 1998). 그러나 국내 소수집단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최형성, 2010) 두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집단 대상의 연구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두 변인 간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Coleman & Karraker, 2000; Dorsey et al., 1999), 어머니의 연령은 한국 어머니의 경우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최형성, 2005b),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학습지도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최형성, 2010).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두 변인 간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와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Hess et al., 2004)로 나뉘어져 어떠한 결과가 주된 결과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어머니의 경우 학습지도 능력에서(최형성, 2005b),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최형성, 2010)되고 있어, 재미한인 어머니의 경우는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유발시킨다.

남편관련 변인은 그 동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여온 변인들이다. 다만 한국 내 소수인종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최형성, 2010)에 의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일부와 부적 관계가, 남편의 연령은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일부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민으로 인해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한 사회적 지원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재미한인들(Chang & Myers, 1997)에게는 남편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강력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외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하겠다.

가족생활 관련 변인인 가정 수입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Hess et al., 2004)와 영역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Elder, Eccles, Ardel, & Lord, 1995)로 나뉘어진다. 한국 어머니와 여성결혼이민자 모두 하위영역에 따른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은 발견되었지만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가정수입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아(최형성, 2005b, 2010), 재미한인 어머니의 경우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선행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 거주기간과 같은 이민자의 특성이 고려된 연구 역시 드문 현실이다(최형성, 2010). 재미한인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새로운 곳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새로운 문화에서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변인 역시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변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환경에 거주한 기간은 이미 국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연구(최형성, 2010)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재미한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미한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제 변인들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자료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또한 재미한인 아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아동기 초기, 청소년 중기 및 후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e.g., Kang et al., 2010; Kim, Han, & McCubbin, 2007),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는 부모에게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어려움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의 아동을 둔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둔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어머니관련 변인(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미국 거주기간, 사회적 지원, 우울),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 연령), 남편관련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활관련 변인(가정 수입)들이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미한인 어머니관련 변인(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미국 거주기간, 사회적 지원, 우울),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 연

령), 남편관련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활관련 변인(가정 수입)들은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재미한인 어머니관련 변인(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미국 거주기간, 사회적 지원, 우울),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 연령), 남편관련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활관련 변인(가정 수입)들 중 어떤 변인들이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예측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재미한인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와 로스엔젤레스 근교에 살고 있는 재미한인 어머니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재미한인 어머니들은 재미한인의 양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일부로, 1)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2)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3) 자녀의 연령이 3학년에서 8학년 사이인 경우에 해당되는 어머니들이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1.73세( $SD = 4.13$ )이었으며,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13.49년( $SD = 8.8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대졸인 경우,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 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13)

| 변인                        | 내용                           | 변인                             | 내용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출신국(n, %)       |                              | 아동의 출신국(n, %)                  |                             |
| 한국                        | 111(100)                     | 한국                             | 40(35.40)                   |
| 미국                        | 0                            | 미국                             | 69(63.72)                   |
| 그 외 지역                    | 0                            | 그 외 지역                         | 1(.88)                      |
| 재미한인 어머니의 학력(n, %)        |                              | 남편 학력(n, %)                    |                             |
| 초졸                        | 0                            | 초졸                             | 0                           |
| 중졸                        | 1(.89)                       | 중졸                             | 0                           |
| 고졸                        | 1(.89)                       | 고졸                             | 4(3.57)                     |
|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 19(16.96)                    |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 4(3.57)                     |
| 대졸                        | 64(57.14)                    | 대졸                             | 47(41.96)                   |
| 석사학위 취득                   | 24(21.43)                    | 석사학위 취득                        | 34(30.36)                   |
| 박사학위 취득                   | 3(2.68)                      | 박사학위 취득                        | 23(20.54)                   |
| 가정 수입(n,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평균<br>미국거주기간(SD, 범위) | 13.49년<br>(8.81, 1년 미만~36년) |
| 2만 달러 미만                  | 2(1.79)                      | 재미한인 어머니의 평균 연령<br>(SD, 범위)    | 41.73세<br>(4.13, 32세~54세)   |
| 2만 1달러 - 4만 달러            | 7(6.25)                      | 남편 평균 연령<br>(SD, 범위)           | 43.91세<br>(3.99, 35세~55세)   |
| 4만 1달러 - 6만 달러            | 14(12.50)                    |                                |                             |
| 6만 1달러 - 8만 달러            | 21(18.75)                    |                                |                             |
| 8만 1달러 - 10만 달러           | 19(16.96)                    |                                |                             |
| 10만 1달러 이상                | 47(43.75)                    |                                |                             |
| 아동의 성별(n, %)              | 남아 58(51.33)<br>여아 55(48.67) | 아동의 평균 연령<br>(SD, 범위)          | 10.57세<br>(1.79, 8세~14세)    |
| 남편과의 의사소통 언어(n,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언어(n, %)             |                             |
| 대부분 한국어                   | 97(85.84)                    | 대부분 한국어                        | 63(55.75)                   |
| 한국어와 영어 혼용                | 10(8.85)                     | 한국어와 영어 혼용                     | 38(33.63)                   |
| 대부분 영어                    | 6(5.31)                      | 대부분 영어                         | 11(10.62)                   |
| 아동이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n, %) |                              | 어머니가 아동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n, %)      |                             |
|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0                            |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 0                           |
| 조금 이해한다                   | 8(7.14)                      | 조금 이해한다                        | 6(5.40)                     |
| 많이 이해한다                   | 64(57.14)                    | 많이 이해한다                        | 54(48.65)                   |
| 전부 이해한다                   | 40(35.72)                    | 전부 이해한다                        | 51(45.95)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직업(n, %)        |                              | 남편의 직업(n, %)                   |                             |
| 전문직/전문 경영/행정직             | 18(16.07)                    | 전문직/전문 경영/행정직                  | 62(55.86)                   |
| 소규모사업 경영                  | 5(4.46)                      | 소규모사업 경영                       | 17(15.32)                   |
| 기술직                       | 7(6.25)                      | 기술직                            | 14(12.61)                   |
| 사무직                       | 5(4.46)                      | 사무직                            | 8(7.21)                     |
| 판매/서비스직                   | 4(3.57)                      | 판매/서비스직                        | 5(4.50)                     |
| 기타                        | 0                            | 기타                             | 5(4.50)                     |
| 전업주부                      | 71(65.18)                    | 무직                             | 0                           |

\* 배경변인별 무응답 제외 후 빈도수(백분율) 및 평균(표준편차) 산출

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86%)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과의 대화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56%)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영어가 주 언어인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아동이 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는 ‘많이 이해한다’ (5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은 ‘전부 이해한다’(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동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정도는 ‘많이 이해한다’(49%), ‘전부 이해한다’(46%) 순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많이 또는 전부 이해하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수입은 10만원 이상인 경우(4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아인 경우가 5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평균 연령은 10.57세( $SD = 1.79$ )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 요인(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총 37문항 5점 척도(1점에서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 사이이며 각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 영역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88, .76, .86, .85,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재미한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숙재(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총 25문항 5점 척도(1점에서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25점에서 125점 사이이며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 영역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92,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우울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의 Depression Inventory를 번안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 4점 척도(0점에서 3점)인 본 척도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측정하고 있다. 총 점수는 0점에서 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증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연령 및 성,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미국 거주 기간, 남편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정수입

이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연령은 만 나이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 거주기간은 어머니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요구되었다. 어머니와 남편의 교육수준, 가정수입, 아동의 성은 해당 영역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었고 그 중 어머니와 남편의 교육수준은 초졸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전문대 졸업 및 대학 중퇴는 14년, 대학 졸업은 16년, 석사 졸업은 18년, 박사졸업은 21년으로 환산되었다.

### 3.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미국 내 소수인종인 재미한인과의 접촉이 용이한 지역 단체, 예를 들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 공립학교, 한인 교회, 한인학부모회와 같은 지역 단체 등을 통해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어에 익숙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들에게는 해당연령대의 자녀가 여러 명일지라도 한 명의 자녀를 염두에 두고 자녀의 연령,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양육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Cronbach's  $\alpha$ ) 계수가 산출되었다. 연구문제 1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연구문제 2를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통계학자들(Green, 1991; Nunnally & Bernstein, 1994)이 변인 당 표본의 수가 적어도 5개 내지 10개는 되어야 안정적인 회귀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고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하여 변인 당 10개의 표본 수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선행단계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하는지를 검정하는 Durbin-Waston 계수를 산출하였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해 허용도와 분산팽창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이미 표 1에 제시하였으므로 나머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은 3.72에서 4.11의 평균점수( $SD = .44 \sim .59$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각 하위영역은 3.82와 3.66의 평균점수( $SD = .62, .71$ ), 어머니의 우울은 평균 .34점( $SD = .2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재미한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 영역이 관련 제 변인들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성은 명목척도 변수이므로

표 2.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N=113$ )

| 변인           | 평균(표준편차)  |
|--------------|-----------|
| 양육효능감        |           |
|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 3.79(.45) |
|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 4.04(.44) |
| 의사소통 능력      | 3.97(.44) |
| 학습지도 능력      | 3.73(.59) |
| 훈육 능력        | 4.11(.50) |
| 사회적 지원       |           |
| 남편의 협력       | 3.82(.62) |
| 주위의 도움       | 3.65(.71) |
| 우울           | .34(.29)  |

상관계수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 $r = -.25, p < .01$ ), 남편의 협력과 정적인 상관( $r = .42,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과 정적 상관( $r = .32, p < .001, r = .26, p < .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은 남편의 협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9, p < .001$ ). 학습지도 능력은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어머니의 교육 수준, 남편의 교육수준과 정적인 상관( $r = .36, p < .01, r = .23, p < .05, r = .23, p < .01, r = .28, p < .01$ ),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연령, 남편의 연령과 부적인 상관( $r = -.25, p < .01, r = -.21, p < .05, r = -.22, p < .01, r = -.24, p < .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0, p < .001$ ). 그 외 나머지 변인들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제 변인들과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 ( $N=113$ )

| 하위영역              | (1)    | (2)    | (3)    | (4)    | (5)    |
|-------------------|--------|--------|--------|--------|--------|
| 아동의 연령            | -.05   | -.10   | -.10   | -.25** | -.13   |
| 남편의 협력            | .42*** | .32*** | .38*** | .36*** | .30*** |
| 주위의 도움            | .17    | .26**  | .16    | .23*   | .15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      | -.25** | -.15   | -.14   | -.21*  | -.02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연령      | -.02   | -.15   | -.06   | -.22*  | .01    |
|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 .14    | .16    | .18    | .23*   | -.10   |
| 재미한인 어머니의 미국 거주기간 | .17    | .02    | .09    | .01    | .16    |
| 남편의 연령            | .05    | -.15   | -.07   | -.24*  | .07    |
| 남편의 교육수준          | .13    | .09    | .08    | .28**  | .03    |
| 가정수입              | .13    | .16    | .00    | .12    | -.07   |

(1)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2)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학습지도 능력, (5) 훈육능력

\*  $p < .05$ , \*\*  $p < .01$ , \*\*\*  $p < .001$

## 2. 재미한인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기본 가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공선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기본 가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였다. Durbin-Watson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잔차항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계수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회귀분석의 Durbin-Watson계수는 1.53에서 1.93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잔차항 간의 큰 체계적인 상관관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들 간의 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허용도와 분산팽창요인을 산출한 결과 모든 허용도는 .1이상, 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회귀모형들의 모든 독립변인들 간에는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N=113)

| 종속 변인        | 투입된 독립변인          | B(SD)     | $\beta$ | 누적된 $R^2$ | F       |
|--------------|-------------------|-----------|---------|-----------|---------|
|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 남편의 협력            | .20(.07)  | .27**   | .238      | 6.38***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      | -.32(.14) | -.21*   |           |         |
|              | 아동의 성             | .14(.08)  | .16     |           |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 .02(.01)  | .18     |           |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미국 거주기간 | .01(.00)  | .14     |           |         |
|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 남편의 협력            | .16(.07)  | .22*    | .138      | 5.57**  |
|              | 주위의 도움            | .13(.06)  | .20     |           |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 .02(.01)  | .17     |           |         |
| 의사소통 능력      | 남편의 협력            | .24(.07)  | .33***  | .191      | 8.17***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 .02(.01)  | .18     |           |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      | -.21(.14) | -.13    |           |         |
| 학습지도 능력      | 남편의 협력            | .27(.09)  | .28**   | .264      | 9.25**  |
|              | 남편의 교육수준          | .05(.01)  | .29***  |           |         |
|              | 남편의 연령            | -.03(.01) | -.19*   |           |         |
|              |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      | -.33(.19) | -.15    |           |         |
| 훈육능력         | 남편의 협력            | .20(.07)  | .25**   | .139      | 8.45*** |
|              | 아동의 성             | .23(.09)  | .24**   |           |         |

\*  $p < .05$ , \*\*  $p < .01$ , \*\*\*  $p < .001$

관련 제 변인들이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하여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관련 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의 경우 남편의 협력,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과 교육 수준 및 거주기간 그리고 아동의 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6.38, p < .001$ ), 설명력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주위의 도움,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5.57, p < .01$ ) 설명력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8.17, p < .001$ ), 설명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 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과 교육 수준 및 연령,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9.25, p < .001$ ), 설명력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능력의 경우 남편의 협력, 아동의 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8.45, p < .001$ ), 설명력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의 경우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재미한인 어머니관련 변인(재미한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미국 거주기간, 사회적 지원, 우울), 아동관련 변인(아동의 성, 연령), 남편관련 변인(남편의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활관련 변인(가정 수입)들이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아동의 성을 제외한 아동관련 변인, 재미한인 어머니관련 변인, 남편관련 변인, 가정생활관련 변인과 양육 효능감 각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관련 변인 중 아동 연령의 경우 어머니의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어머니관련 변인 중 남편의 협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양육효능감 각 하위 영역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위의 도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관련 변인 중 남편의 연령은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교육 수준은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생활관련 변인인 가정 수입과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미국 거주기간은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남편의 협력의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머니(최형성, 2005b), 여성결혼이민자(최형성, 2010), 일본 어머니(Holloway et al., 2005)와 10대 어머니(Shapiro & Mangelsdorf, 1994)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남편의 협력과의 상관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양육이란 부부의 공동 책임에 의한 공동 과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집단이건 간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남편의 협력의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장 강력한 관련성을 갖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재미한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위의 도움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영역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Cutrona와 Troutman (1986), Coleman과 Karraker(199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강력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 한국 어머니 집단과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최형성, 2005b, 2010). 재미한인 어머니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위의 도움과 양육효능감 하위영역과의 상관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관련된

하위영역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한인에게서 친·인척에 의한 사회적 지원의 현격한 저하를 발견한 Chang과 Myers(1997)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결과로,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인척들과의 교류 부재가 재미한인 어머니들로 하여금 양육과 관련된 주위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적게 하고 그로 인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의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같은 이민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인 어머니들에게서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주위의 도움과 관련된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의 수가 적고, 그 상관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미한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이는 한국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 단위의 생활 및 개인주의의 생활에 의한 결과일수도 있겠지만, 양육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한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킹 구축, 재미한인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겠다.

어머니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우울과 전반적인 양육효능감과 학습지도 능력과의 부적 상관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학습지도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효능감 하위영역과 부적 상관을 보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지만(최형성, 2010), 우울과 양육효능감과의 부적 상관을 언급한 Coleman과 Karraker (1997), Surkan 등(2008), Teti와 Gelfand (199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효능감 메커니즘을 통해 우울과 같은 생리적·정서적 상태가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Bandura (1997)의 견해와 관련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겠다. 재미한인 어머니에게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 상이한 두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된 선행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자세히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재미한인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학습능력과 우울과의 유의한 상관의 결과는 재미한인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에 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논의 가능한 결과라 하겠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학습지도 능력에서만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양육효능감 모든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이다(최형성, 2005b, 2010). 교육수준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Bogensneider et al., 1997; Holloway et al., 2005; Levy-Shiff et al., 1998) 역시 두 변인간의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그러한 불일치 연구 중 하나인지 아니면 이민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경향성인지에 관하여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미한인 어머니의 미국 거주기간과 양육효능감과의 무관한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한국 거주기간과 무관함을 보여준 선행 연구(최형성, 2010)와 일치되는 연구 결과로, 양육효능감이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거주하는 기간과 비례하여 신장되거나 수축되는 것이 아니며, 양육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과 같이 단순한 이민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심도 깊은 질적인 측면에 대해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정 수입과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과의 무관한 관계는 양육효능감 하위영역들과 가정수입의 상관성이 나타난 한국 어머니 집단이나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Elder et al., 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지 않는 결과인데,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로 재미한인 어머니들의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 매개 또는 중재 변인 유무에 의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동과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학습지도 능력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과 어머니 연령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상관성이 없는 관계임을 보고한 Coleman과 Karraker(2000), Hess 등(2004), Dorsey 등(1999)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이며, 아동과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효능감의 각 하위영역들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어머니 집단이나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최형성, 2005b, 2010). 남편의 연령 역시 재미한인의 경우 학습지도 능력과만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의 연령이 의사소통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최형성, 2010)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관계로 본 연구 결과가 다른 두 집단과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를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재미한인의 경우 아동, 어머니, 남편의 연령이 모두 학습지도 능력에서만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한 흥미로운 결과인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는 재미한인 이민의 주목적이 자녀의 학업(미국투자 이민의 긍정적 조건, 2012. 7. 11)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은 결과라 사료되는데, 자녀의 학업을 중요시하는 재미한인들이 갖는 아동의 성장에 따른 학업에 대한 가족의 더 많은 관심과 부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부모가 미국 학교 교육의 경험이 없음으로 인한 자녀 진학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남편의 교육수준이 학습지도 능력에서만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최형성, 2010).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남편이 자녀학습 지도에 유용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러한 정보를 아내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아내의 학습지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결과라 하겠다(최형성, 2010).

둘째, 관련 제 변인들이 양육효능감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남편의 협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미한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학습지도 능력과 훈육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위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위의 도움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미국 거주기간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성은 여아일 경우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훈육능력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 및 연령은 학습지도 능력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수입과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은 양육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결과 중 하나는 재미한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위의 도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이 두 변인 간의 영향력 정도는 한국어머니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하위영역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를 한국어머니와 비교할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머니에 비해 주위의 도움의

영향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최형성, 2010), 재미한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위의 도움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보여주는 주위의 도움의 영향력보다 더 낮으며 양육효능감 하위영역 중 하나의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재미한인들이 주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정도가 여성결혼이민자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재미한인들이 속해있는 문화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 문화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 주위의 도움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재미한인 어머니들을 위한 유용한 사회적 관계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은 앞으로 재미한인과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 사료된다.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 남편의 협력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머니와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최형성, 2005b, 2010). 이미 논의 첫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히 양육이란 부부가 함께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므로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고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할 때 상승효과가 높게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더구나 이민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변화한 삶 속에서의 남편의 협력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지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이민이 친·인척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네트

워킹을 단절시켰다고 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한국음식을 먹는 가까이에 있는 모든 한국인이 재미한인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자인 남편이야말로 자녀 양육의 문제를 솔직하게 의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며, 자녀 양육에 관한 남편의 협력은 재미한인 어머니가 문화와 언어가 낯선 이국 땅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된다. 재미한인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남편 협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부 대상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때 프로그램의 더 많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효능감의 여러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이 양육효능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과(최형성, 2010)와 비교되는 결과 중 하나이다. 재미한인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본 선행연구가 드물어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어려우나, 주위의 도움에 대한 지각이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미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위의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 때 재미한인 어머니의 우울이 적어지고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력도 적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남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

구 결과는 한국어머니와 여성결혼이민자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최형성, 2005b, 2010)로, 동성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와 동성끼리 갖게 되는 감정 및 경험의 공유로 인해 동성자녀 즉 여아를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최형성, 2010).

이외에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남편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관한 논의는 두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 본 논의 첫째에서 언급한 부분과 중복되는 것이 많으며, 어머니의 미국 거주기간과 교육수준 역시 두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 본 논의 첫째에서 언급한 부분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 영향력이 높은 것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논의 둘째 부분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남서부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한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한인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다소 적은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재미한인이라는 미국 내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수가 Green(1991)과 Nunnally와 Bernstein(1994) 등의 학자들이 제시한 최소 표본 수 결정 기준을 웃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연령대의 자녀를 둔 재미한인 어머니 표집조사로서는 그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대상자 수로 인한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한인 어머니에게 남편의 협력이 강력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부가 함께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재미한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주위의 도움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지원 체제 등의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다문화 소년의 방화, 우리의 반성 (2012. 5. 16).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opinion/201205/h2012051621085276070.htm&ver=v002>에서 검색
- 미국투자이민의 긍정적 조건 (2011. 7. 11).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oooid=1&nnum=613519](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oooid=1&nnum=613519)에서 검색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석호 (2009. 7. 27). 재외동포 680만명...첫감소.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79>에서 검색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

- 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재미한인역사 (2003). 2003 재미한인 100주년 기념 행사 <http://apa.si.edu/Curriculum%20Guide-Final/unit1.htm>에서 검색
- 재미한인은 도대체 몇 명? (2011. 5. 29). KBS 뉴스. <http://news.kbs.co.kr/politics/2011/05/29/2298862.html>에서 검색
- 최형성 (2005a). 남녀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인간발달연구*, 12(4), 121-137.
- 최형성 (2005b).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 최형성 (2010). 동남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개발(1):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4), 57-70.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22(3), 1-1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 A. T. (1967). *Depression: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 (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Chang, C. Y., & Myers, J. E. (1997).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Korean Americans: Implications for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7, 35-49.
- Cho, S., Hudley, C., & Black, H. J. (2003). Cultural influences on ratings of self-perceiv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for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ssessment For Effective Intervention*, 29(1), 3-14.
- Choi, H., Stafford, L., Meininger, J. C., Roberts, R. E., & Smith, D. P. (2002).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s' marital distress, social stress, and resources. *Adolescence*, 41, 263-283.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 771-784.
- Green, S. B. (1991). How many subjects it take to do a regression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6(3), 499-510.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 (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23-437.
- Holloway, S. D., Suzuki, S., Yamamoto, Y., & Behrens, K. Y. (2005).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Japanese mo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6(1), 61-76.
- Kang, H., Okazaki, S., Abelman, N., Kim-Prieto, C., & Lan, S. (2010). Redeeming immigrant parents: How Korean American emerging adults reinterpret their child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3), 441-464.
- Kim, E., Han, G., & McCubbin, M. A. (2007). Korean American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accultura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amily Community Health*, 30(25), 533-545.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achida, S., Taylor, A. R., & Kim, J. (2002). The role of maternal belief in predicting home learning activities in head start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76-185.
- Mash, E. J., & Johns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ew York: McGraw-Hill.
- Park, W. (2009). Parental attach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Adolescents Social Work*, 26, 307-319.
- Rhee, S., Chang, J., & Rhee, J. (2003). Acculturati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self-esteem among Asian and Caucasi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38, 749-768.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 Sohn, S. & Wang, X. C. (2006). Immigrant parents' involvement in American schools: Perspectives from Korean mot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4(2), 125-132.
- Surkan, P. J., Kawachi, I., Ryan, L. M., Berkman, L. F., Vieira, L. M., & Peterson, K. E. (200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 grow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1), 125-133.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U. S. Census Bureau. (2010). *Profile of general population and housing characteristics: 2010*. Retrieved from <http://factfinder2.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 Zhou, M. (2004). *Coming of age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e demographic profile of Asian American youth*. In J. Lee & M. Zhou (Eds.), *Asian American youth: Culture, identity, ethnicity* (pp.33-50). New York: Routledge.

1 차원고접수 : 2013.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3. 05. 16.

최종게재결정 : 2013. 06. 04.

## **Korean Americ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Choe, Hyung Sung**

De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merican mothers, their husbands, thei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ffected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using a sample of 113 Korean American mothers in the U. S. This study made use of questionnaires based on the studies by Choe and Chung (2001), Shin (1007), Lee and Song(1991),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subscales were correlated positively to the husband's support, the social support, the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husbands' educational attainment, and correlated negatively to the children' age, the mothers' depression, the mothers' age, and the husbands' ag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d that the husbands' support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Key words : Korean Americ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husbands' support, depression, social support*